논리연구 16-1(2013) pp. 61-85

# 대물(*de re*) 문맥과 '-라고'의 몇 가지 의미론적 특성*

민 찬 홍

【국문요약】 대언 믿음과 대물 믿음의 구별을 소개하고, 믿음 문맥과 양상 문맥에서 대언(*de dicto*)/대물(*de re*) 애매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양상 구문의 경우 한국어는 영어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부정문에서도 대언/대물 구문의 애매성이 나타나는 바,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는 대물 부정문에 해당하는 통사 구조를 허용한다. 대물 구문은 지시적으로 투명한 구문이요 따라서 동일자 대입률을 허용하는 구문이며, 대언 구문은 지시적으로 불투명한 구문이요 동일자 대입률을 허용하지 않는 구문이다. 그런데, 인용 동사, 언어행위동사, 인지태도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한국어의 인용 어미 '라고'는 특이하게도 영어와 평행하게 대언/대물 애매성을 갖는 문장 뿐 아니라 애매성 없는 대물 구문을 구성하는 문장도 제공한다. 또한, '라고' 구문은 내포절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공약에 있어서도 중립적이다. 한국어에서는 내포절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공약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음/임' 또는 '라는 것'이라는 어미를 사용한다. 이런 점 때문에 '앎이 진리를 전제한다'는 서구 인식론의 원칙은 인식 문장을 한국어 어미 '라고'를 사용하는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주요어】 대물, 대언, 믿음 문장, 인용 어미, '라고'

---

접수일자: 2012.01.23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3.02.05 게재확정일: 2013.02.10
* 이 논문은 2008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08-N)

## 1. 대언(*de dicto*)과 대물(*de re*)

경화는 옆집 남자[1]가 외계인이라고 믿는다. 경화는 모르고 있지만 그 옆집 남자는 높이뛰기의 세계기록 보유자[2]이다. 높이뛰기의 세계기록 보유자가 외계인이라고 믿는지 경화에게 묻는다면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경화는 높이뛰기 세계기록 보유자가 외계인이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 않다. 경화는 "옆집 남자는 외계인이다."라는 문장을 자신의 믿음 목록에 갖고 있지만 "높이뛰기의 세계기록 보유자는 외계인이다."라는 문장은 그 목록에 없다. 이런 믿음을 '문장에 대한', '말에 대한'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대언적(*de dicto*) 믿음이라고 부른다.

한편, 경화가 옆집 남자가 외계인이라고 믿는다면 경화는 높이뛰기의 세계기록 보유자에 대해서, 비록 그런 기술어로 그를 지칭하는 일은 경화에게 기대할 수 없지만 하여튼 바로 그 사람에 대하여, 그가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를 '옆집 사는 남자'라는 말로 지칭하든, '높이뛰기의 세계기록 보유자'라는 말로 지칭하든, 또는 다른 어떤 말로 지칭하든 관계없이 경화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하여 그가 외계인이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앞서 말한 대언적 믿음과 구별하여, '사물에 대한'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대물적(*de re*) 믿음이라고 한다.

---

1) '옆집 남자'는 지표적(indexical) 요소를 결정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어서, 당연하게도 문맥에 따라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지표성에 대해서 말할 참이 아니므로, 이 표현의 지표성을 무시하고 이 표현의 지시가 완벽하게 문맥독립적인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다룬다. 또 이것이 유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정관사 기술어구(a definite description)라고 간주하고 논의한다.

2) 역시 유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정관사 기술어구로 간주한다.

믿음을 표현하는 표준적인 영어 문장("*s* believes that *p*.")은 대언 믿음과 대물 믿음을 형태적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두 믿음은 동일한 문장에 대한 두 해석일 뿐이다. 한국어 어미 '-라고'는 이점에서 독특한데, 뒤에 말하겠지만, 형태적으로 애매성 없이 대물 믿음에 대응하는 구문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이 글은 영어와 구별되는 한국어의 이런 특징을 보이려고 하는 바, 대언/대물 믿음뿐 아니라 양상문맥과 인용문맥을 포함하는 내포 문맥 일반의 지시적 불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라고'의 이런 특징이 일부 내포문과 관련하여 한국어의 형식의미론적 특징을 이룬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우선 믿음 문장 이외에 대언/대물 애매성이 발생하는 다른 문맥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기로 하자.

대언/대물의 구별은 양상 문맥에서도 발생한다. 8은 7보다 필연적으로 크다. 여기서 '필연적으로'는 "8은 7보다 크다."는 문장이 필연적 진리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이때의 필연성은 문장의 속성, 진리의 속성이 된다. 이러한 필연성은 대언적 필연성(*de dicto* necessity)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필연적으로'를 8이 7에 대해서 갖는 속성을 한정하는 말로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읽으면 이 문장은 '필연적으로 7보다 더 큼'이라는 속성을 8에 부여하는 문장이 된다. 이러한 필연성은 대물적(*de re*) 필연성이다.

물론 대물적 가능성도 말할 수 있다. 더밋의 예를 가지고 말하자면, "알렉산더를 가르친 (유일한) 사람은 알렉산더를 가르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문장[3]은 "[알렉산더를 가르친 사람이 알렉산더를 가르치치 않았음][4]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가능성 술어를 문장

---

3) Dummett, M., (1981)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Harvard University Press, p.128. 이하 '알렉산더를 가르친 사람'을 정관사 기술어구(definite description)로 간주한다.

4) '[…]'은 명제적 내용을 표시한 것. 앞으로는 내포절 또는 내포된 내용의 범위를 '[…]'로 묶어서 나타내기로 한다.

에 부여된 술어로 읽으면, 즉 대언적 가능성으로 읽으면 거짓인 문장이지만, “알렉산더를 가르쳤던 사람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가 알렉산더를 가르치지 않았음]이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읽어서, 가능성 술어가 알렉산더를 가르쳤던 사람의 가능적 속성,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능했던 행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문장은 참이며 이때의 가능성은 대물적 가능성이다.

지난 세기의 4분기 이후부터 대물/대언적 양상/믿음에 대한 인식론적/형이상학적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 경화에게 어떤 대언적 믿음을 부여하는 것이 경화와 어떤 문장을 관계 짓는 것이라고 할 때, 경화에게 대물적 믿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적 수단과 무관하게, 그 대상에 관하여 갖는 믿음이라는 심적 상태가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등등.

대물 믿음의 개념보다는 대물 양상이라는 개념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 본질주의 철학의 요점이 사물들이 저마다 어떤 필연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던가. 따라서 대물적 필연성이라는 개념이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본질주의에 대한 찬반 논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대물 양상의 문제는 대물적 필연성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직관적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대물 양상을 표현하는 수학적/논리적 장치가 가능한가 하는 전문적인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콰인을 비롯한 주요 반대자들의 회의는 거의 극복된 것처럼 보인다. 아니, 대물 양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논리적 문제가 정말 ‘거의’ 극복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다만, 적어도 양상과 관련한 대언/대물의 구분은 믿음과 관련한 구분보다 철학적인 알맹이가 있어 보인다.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 또는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이 글에서 말할 것이 없다. 양상 구문에 대해서 내가 말하

고 싶은 것은 양상 문장에 관한한 영어 문장의 애매성은 그 문장의 한국어 번역에서, 또는 그와 의미론적으로 등가라고 간주할 수 있는 한국어의 표준적인 문장에서 동일한 애매성으로 보존되는데, 이것은 한국어에서 인용 구문 및 명제 태도 구문에서는 내포적 인용 어미 '라고'가 쓰이지만 양상 구문에서는 그에 준하는 어미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포 문맥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는 주된 차이점은 '라고'에서 나온다.

## 2. 범위 애매성(scope ambiguity)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대언/대물의 구분은 일차적으로는 양화사의 지배 범위와 관련한 통사적 또는 형식의미론적 문제이다. 경화의 믿음에 관한 앞 절의 논의는

(1) 경화는 옆집 남자가 외계인이라고 믿는다.

라는 문장이 갖는 구조적/통사적 애매성과 관련된다. (1)은, 다음의 (2)처럼 완전한 존재양화문장이 '믿는다'의 목적절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3)처럼 양화사의 변항 구속(binding)이 '믿는다'를 가로질러서, 콰인의 표현대로[5] 불투명한 문맥 안으로 양화되어(quantified into)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2) $\mathrm{Bel}_{\mathrm{K}}[(\exists x)(\mathrm{N}x \ \& \ \mathrm{C}x)]$[6]

---

5) Quine, W.V.O. (1953), "Reference and Modality", in his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per Torchbooks, pp.139-159.

6) 내포절 또는 내포된 열린 문장 '[…]'를 '믿다(Bel)'라는 관계어의 한 항으로

(3) $(\exists x)(Nx \ \& \ Bel_K[Cx])$

양화사의 구속 범위에 관한 애매성이 (2)처럼 해소되면 대언적 믿음을, (3)처럼 해소되면 대물 믿음을 표현한 것이 된다.

양상 문맥의 경우,

(4) 8은 7보다 필연적으로 더 크다.

는

(5) $\Box(\exists x)(x=8 \ \& \ x>7)$
(6) $(\exists x)(x=8 \ \& \ \Box(x>7))$

로 각각 명료화(disambiguate)될 수 있고 (5)는 대언 양상을, (6)은 대물 양상을 표현한 것이 된다. 알렉산더와 그 스승의 조우에 관한 예문

(7) 알렉산더를 가르친 사람은 알렉산더를 가르치지 않았을 수 있다.

는 다음의 (8)처럼 참일 수 없는 대언 양상 문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9)처럼 역사의 우연을 말하는 평범한 대물 양상 문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8) $\Diamond(\exists x)(y)((Ty \leftrightarrow y=x) \ \& \ \neg Tx)$
(9) $(\exists x)(y)((Ty \leftrightarrow y=x) \ \& \ \Diamond\neg Tx)$

---

간주한 것이다. 다른 한 항은 K로 표시된 '경화'. 믿음 문장의 통사적 구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 3. 한국어의 대물 부정문(*de re* negation)

양화사의 지배 범위의 애매성이라면 믿음 문맥((1)-(3))이나 양상 문맥((4)-(9))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처음으로 대물/대언 문맥을 구별하면서 그것을 일차적(primary)/이차적(secondary) 출현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었던 럿셀[7]은 정관사 기술어구와 부정어의 지배 범위 교차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애매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10)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은 다음의 두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11) $\neg(\exists x)(y)((Fx \leftrightarrow y=x)\ \&\ Bx)$
(12) $(\exists x)(y)((Fx \leftrightarrow y=x)\ \&\ \neg Bx)$

대언/대물 구별을 인식론적/형이상학적 함축 없이 범위 애매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불편한 마음 없이 (11)을 대언적 부정문으로, (12)는 대물적 부정문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대물 범위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연결시킨다면 (12)는 '부정적 속성'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으로, 아주 오래된 형이상학적 논쟁을 되살리는 문장이 될 것이다.

대물 부정문과 관련하여 '-라고'라는 한국어 어미의 의미론적 특성에 대해 논하려는 이 글의 목적과 멀게라도 연결될만한 사항은,

---

7) Russell, B. (1905), "On Denoting", in Martinich, A.P., (ed.), *The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Universiry Press, 1990, pp.208-210.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 하나 뿐인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이고, 경우에 따라서 (12)와 같은 대물 부정문을 표현하는 통사적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영어에서 부정문은 부정연산자(negation operator) 'not'을 술어 앞에 붙여 만든다. 명제의 연산에서 '¬p'에 형태적으로 대응하는 부정어가 없어서, 명제의 부정을 특정해서 표시하려 할 때에는 'it is not the case that …'이라는 조어 구문을 사용한다. (물론 이 구절에서도 부정어는 술어 앞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어는 부정문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첫째는 부정하고 싶은 내용에 부정 술어를 붙이는 방법이다. 한국어에서 부정어(…가 아니다)는 연산자가 아니라 하나의 술어로서, 명제적 내용을 주어로 가지는 경우 형태적으로 정확하게 '¬p'에 대응하는 구문이 된다. 또한 한국어는 영어의 부정연산자 'not'에 대응하는 부사 '안/아니'도 갖고 있어서 부정하고 싶은 술어의 앞에 이것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이 두번째 방법은 용언 술어문("그는 늙었다.")의 경우에만 올바른 문장("그는 안 늙었다.")을 만들고 체언 술어문("그는 대머리이다.")의 경우에는 비문("그는 안 대머리이다.")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고, 올바른 문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유아적인 구문으로 취급되어 권장되는 어법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어는 용언 술어문의 경우 위의 (11)과 (12)에 형태적으로 대응하는 일상어 부정문을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의 술어 '대머리'를 '늙었다'로 대치하는 경우 한국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부정문을 제공한다.

(13) 현재 프랑스의 왕은 늙지 않았다.
(14) 현재 프랑스의 왕은 안 늙었다.

이 경우 (14)에서 '현재 프랑스의 왕'은 명백하게 부정어의 범위 밖에 위치하므로 (14)를 대물 부정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당해 보인다. 다만, (13)은 다시 애초의 애매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대언 부정문으로도, 대물 부정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부정어의 범위 문제에 관한한 한국어는 영어 부정문의 애매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부정문(13) 이외에 애매성 없는 대물 부정문(14)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4. 불투명성(opacity)과 동일자 대입률

모든 복합적인 것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더 단순한 요소들의 결합이며, 이상적인 경우에 복합적인 것들의 속성은 구성요소의 속성들에 의해 설명된다. 과학방법론과 형이상학에서 '환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천명되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하는 이런 생각은 언어에서는 구성성(compositionality; 문맥에 따라 '구성률')이라고 부른다. 구성적인 언어란 복합적 표현의 의미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표현의 의미로부터 도출되는 언어이다.

인지과학에서 지능의 설계, 특히 단순한 동물들의 지능을 구현하려는 지능 설계 프로젝트에서는 간혹 의도적으로 무시되기도 하지만, 유한한 단어로 새로운 문장을 무한정 만들어내는 생산성과 유한한 공리계에 의해서 표현될 것을 요구하는 학습가능성을 다 갖춘 언어의 의미 기제를 설명하려는 과학적 의미론에서 구성성은 부인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성은 복합 표현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관련되는 것들의 범위를 제한하는 도구이다. 구성적 언어에서 복합적 표현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정보로부터만 결정되며 동시에 그 요소들의 **의미론적 정보**로부터만 결정된다. 예를 들어, 앞의 문장 (1), "경화는 옆집 남자가 외계인이라고 믿는다."에서 '옆집 남자는 외계인'라는 복합적 표현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외계인'는 고려되어야 하지만 '믿는다'는 고려 사항이 아니며, '외계인'의 의미 정보는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 말의 예컨대 형태론적 정보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8)]

구성률을 지시(또는 지시체; reference)에 대하여 말하면

[지시의 구성률] '모든 복합적 표현의 지시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표현들의 지시의 함수이다'

라고 정식화될 것이다. 지시의 구성률은 어떤 복합적 표현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 표현을 동일한 지시를 갖는 다른 표현으로 교체해도 복합적 표현의 지시는 불변이어야 함을 함축한다. 예를 들어, (1)의 예와 관련해서, '경화의 옆집 남자는 외계인'이고 '경화의 옆집 남자'와 '높이뛰기 세계기록 보유자'가 동일인을 지시한다면 '높이뛰기 세계기록 보유자는 외계인'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동일자 대입률이다. 따라서 '$a$'가 지시어(referential term)일 때 단칭어에 대한 동일자 대입률이란 다음 추리의 타당성 요구이다:

$$\frac{\Phi a \ \& \ a=b}{\therefore \ \Phi b.}$$

8) Dever는 이 점을 '의미론적 국소성(semantic locality)'와 '의미론적 폐쇄성(semantic closure)'라는 두 원칙으로 나누어 정식화하고 있다. Dever, J. (2006), "Compositionality" in Lepore, E., and Smith, B.C., (ed.),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p.634. 참조.

또, 일반적으로, 술어의 경우, '*a*'가 단칭 지시어이고, 'F', 'G'가 단칭 지시어에 의해 충족되는 1계 술어일 때 술어에 대한 동일자 대입률은 다음 추리의 타당성 요구이다:

$$\frac{Fa \ \& \ (x)(Fx \leftrightarrow Gx)}{\therefore \ Gb.}$$

예를 들어, "경화는 심장을 가졌다."가 참이고 '심장을 가진 것'과 '콩팥을 가진 것'이 동일한 집합을 가리킨다면(co-extensional), "경화는 콩팥을 가졌다."도 참이며, 따라서 "경화는 심장을 가졌다."는 '심장을 가진 것'이라는 술어에 대하여 지시적으로 투명한 문맥을 만든다.

앞의 (1)과 같은 믿음 문장, (4), (7)과 같은 양상 문장들은 대입률을 위반하며 따라서 (적어도 지시에 관한한) 언어의 구성성 원리를 위반하는 사례처럼 보인다. 이 문장들은 적어도 한 가지 자연스러운 해석(대언적 해석)에서 대입률을 위반한다. (1)과 '옆집 남자=높이뛰기 세계기록 보유자'로부터 "경화는 높이뛰기 세계기록 보유자가 외계인이라고 믿는다."는 도출되지 않는다.

'지시적으로 불투명한(referentially opaque)' 문맥이라는 이름을 언어철학계에 통용시켰던 콰인[9]은 대물/대언의 구별에 대응하는 것으로 '관계적(relational)' 용법과 '관념적(notional)' 용법을 구별하였었다. 여기서 콰인(*ibid*. p.353)은 지나가는 말로 라틴어와 라틴계 언어들이 관계적 의미와 관념적 의미의 차이를 형태적으로 반영하는 통사적 장치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도 이런 장치는 없는 것 같다.

---

9) Quine, W.V.O., (1956) "Quantifiers and Propositional Attitudes",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53, pp.353-355.

## 5. '-라고'와 대물 믿음

대언/대물 구별과 관련하여 한국어가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 경화는 [옆집 남자가 외계인이]라고 믿는다.

뿐 아니라

(15) 경화는 옆집 남자**를** [외계인이]라고 믿는다.

도 올바른 문장으로 허용한다는 점이다. (1)은 영어 문장의 애매성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15)는 '라고 믿는다'가 '옆집 남자는 외계인이다'라는 명제적 내용의 술어가 아니라 '외계인'라는 단어의 술어로 되어 있는 것같다. 즉, (15)는

(3) $(\exists x)(\mathrm{N}x \ \& \ \mathrm{Bel}_{\mathrm{K}}[\mathrm{C}x])$

의 대물 믿음 문장으로, 즉 '옆집 남자를'을 '믿는다'의 범위 밖에 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무엇보다도 (15)의 '옆집 남자'는 지시적으로 투명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 (15)가 대물 믿음을 표현하는 문장임을 결정적으로 입증한다. 옆집 남자가 높이 뛰기 세계기록 보유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15)와 이 동일성으로부터

(16) 경화는 높이뛰기 세계기록 보유자를 [외계인이]라고 믿는다.

가 타당하게 추론된다. (15)는 이른바 동일자 대입률의 검사를 통과한다. 글의 서두에 말했던 식으로 말한다면, 경화가 외계인이라고 믿는 그 사람을 '옆집 남자'라고 기술하든, '높이뛰기 세계기록 보유자'라고 기술하든, 또는 다른 어떤 말로 기술하든 경화는 그를 외계인이라고 믿는다.

더욱이 (15)는 주어 '경화는'과 목적어 '옆집 남자를'의 도치를 허용하는데, 이렇게 도치한

(16) 옆집 남자를 경화는 [외계인이]라고 믿는다.

도 형태적으로도 기호화된 대물 믿음 문장 (3)과 유사하다.

이에 비하여 영어는

(18) *Kyunghwa believes her next-door guy to be an alien.

이라는 형태를 올바른 문장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영어에서 '옆집 남자'를 내포 문맥 밖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19) Kyunghwa's next-door guy is believed by Kyunghwa to be an alien.

(20) Of Kyunghwa's next-door guy, Kyunghwa believes that he is an alien.

이라는 다른 구문을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한국어 '라고'의 이러한 특징은, 대물 구문으로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나, 국어학자들에 의해 주목되었다. 이필영(2005)은

(21) 경화는 못먹는 버섯을 먹는 버섯이라고 한다.

를 '필수적 대격형 구문'이라고 부르는데,[10] 인용절 주어가 주격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22) 경화는 못먹는 버섯이 먹는 버섯이라고 한다.

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화는 못먹는 버섯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실제로는 몸에 무척 좋은 것들도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일찍이 그것을 알아내고는 자기들만 먹기 위해서 그런 말을 퍼뜨린 것이라고 믿는다면 경화의 그런 믿음은 (21)로도, (22)로도 표현될 수 있다.

(21)과 (22)의 진정한 차이점은 전자는 대물 구문이지만, 후자는 대언/대물 애매성을 가진 구문이라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각각의 내포 범위를 표시하고, 기호로 나타내면

(23) 경화는 못먹는 버섯을 [먹는 버섯이]라고 한다.
$(\exists x)(\neg Ex \ \& \ Say_K[Ex])$

(24) 경화는 [못먹는 버섯이 먹는 버섯이]라고 한다.
$Say_K[(\exists x)(\neg Ex \ \& \ Ex)]$

라고 표기된다. (22)가 비문처럼 보이는 것은 '못먹는 버섯이 먹는 버섯'($\neg Ex \ \& \ Ex$)이라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순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을 줄 수 있으므로 (22)는 성립한다.

또 이필영(2005)은 (15)형태의 '라고' 문장들을 대물 구문으로 보는 해석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만한 문장을 예시하고, 의미

10) 이필영 (2005), "인용구문의 의미 특성 연구", 『언어』, 30-3, pp. 471-486.

자질을 분석한다. 그는

(25) 경화는 {*세 사람이, 세 사람을} 다섯 사람이라고 보고했다.

를 제시하면서, 전자는 '세 사람'이 특정한 사람임을 나타낸 것이고, 후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님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11] 나는 이 문장도 전자는 대언 구문이고, 후자는 대물 구문이라고 보는 것이 제대로 된 의미 분석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26) 경화는 [세 사람이 다섯 사람이]라고 보고했다.
$\mathrm{Rep}_K[(\exists A)(A \ni 3 \ \& \ A \ni 5)]$

(27) 경화는 세 사람을 [다섯 사람이]라고 보고했다.
$(\exists A)(A \ni 3 \ \& \ \mathrm{Rep}_K[A \ni 5)]$[12]

중요한 점은 (27)의 '세 사람'이, 많은 경우에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특정인을 지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13]

수사 반장인 경화는 어떤 범죄 현장을 조사한 후 범인은 모두 다섯 사람인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그 팀의 한 수사관은 경화와 의견이 다르다. 수사 회의에서 그 수사관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

---

11) 이필영 (2005) 같은 글

12) 이 문장들은 1계논리화(first-orderizable) 안 되는 것들. 편의상 담론역을 {사람}으로 잡은 것.

13) 이필영 (2005)에 따르면, 이필영 뿐 아니라, 이정민("(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1992)) 등의 국어학자들이 (27)의 '세 사람'이 특정 대상을 지시한다고 본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특정성 주장은 이 글로 충분히 반박된다고 믿는다.

한다: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등 모든 흔적은 피해자 이외에 현장에 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화 반장님은 세 사람을 다섯 사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수사관의 말 중 마지막 문장은 (27)의 형태이지만, 이 수사관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인지 자기도 모르지만 범인은 세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27)의 ‘세 사람’은 특정성이라는 의미 자질은 갖지 않는다. (27)의 ‘세 사람’이 많은 발화 상황에서 특정성 자질을 갖는다 하더라도, (26)과 (27)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대언/대물 애매성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이다.

(26)은 (7)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7)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대물/대언 애매성을 가지는 것 같고, 대언 구문으로 해석되는 경우 참일 수 없는 문장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26)은 (1)과 같은 유형의 애매문이 되는 셈이다. 이필영(2005)은 이것을 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내용문의 주-술 충돌이 너무 두드러져서 정상적인 국어 문장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 6. ‘-라고’ 구문의 화자 공약(commitment)

우리가 프레게 이전의 의미론적 순진함을 되찾을 수 있다면 ‘지구는 돈다’라는 말이 ‘갈릴레오는 말하였다’의 발화와 결합되는 순간 그 의미가 그토록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불평하였던 데이빗슨[14]은 ‘같은 말하기(samesaying)’ 관계라는 것을 도입하여 간접 인용 문장을 분석한다. 프레게 이전의 의미론적 순

---

14) Davidson, D. (1968), “On Saying That”, in his *Inquiries into Truth &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p.93-108.

진함을 회복한 그가 보기에

(27) 갈릴레오는 지구가 돈다고 말하였다

에서 '지구가 돈다'는 언급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15]인 맥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된 것이어야 하였다. 데이빗슨의 분석에 따르면 (27)은

(28) 지구는 돈다.
(29) 갈릴레오는 그것을 말했다.

라는 두 문장이 병렬적으로(paratactically) 연결된 것이다. (28)에서 '지구는 돈다'는 데이빗슨의 소원대로 사용(used)된 것이고, (29)의 '그것'은 (28)의 내용을 지시한다. 더 정밀하게 말하면 (27)은

(30) 갈릴레오는 하나의 발화를 하였는데, 그 발화로 해서 내가 '지구는 돈다'고 말할 경우 갈릴레오와 나는 같은 말하기(samesaying) 관계에 있게 된다

라고 분석된다. 여기서도 내가 그와 같은 말하기 관계에 있기 위해서 나는 '지구를 돈다'는 문장을 발화해야 하는데, 인용 문맥을 벗어나서 발화해야 하니 아마도 내가 이것을 발화할 때 나는 이 문장을 사용할 것이다.

데이빗슨의 이 분석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간접 인용 구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데이빗슨의 고민은 프레게가 120년 전에 주었던 답변이 그 직관적인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리

15) 프레게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 즉 지시적으로 투명한 맥락을 가리킴.

조건적 의미론 및 해석론적 접근의 시각에서 볼 때 선결문제요구의 혐의가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프레게는[16] 대입률이 성립하지 않는 문맥을 '간접(oblique) 문맥'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것은 내포 문맥에서는 말들이 통상적인 (그것들이 지시적으로 투명한 문맥에서 갖는) 지시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프레게는 간접 문맥에서 말들은 지시체가 아니라 센스(sense)를 가리킨다고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내포 문맥에서는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 표현들이 '동일자'가 아니라, 동일한 센스를 갖는 표현들이 '동일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내포 문맥에서는 지시체 동일자의 대입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센스 동일자의 대입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말의 센스란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지시체를 가리키게 해주는 통로, 언어적 정보이되, 적어도 프레게의 생각으로는,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이다. '경화' 같은 고유명사(proper name)의 경우 그 말을 사용해서 경화를 가리켜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언어적 정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외계인' 같은 술어에 대해서는,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말과 관련하여 지시체를 확정하는 데 동원하는 정보들은 각양각색일 것이고, 지시체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 중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보유한 정보가 과연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쿼크' 같은 술어 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의 물리학자들이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다는

---

16) 내포 문맥에 대한 프레게의 설명을 자세히 다루는 일은 이 글의 범위를 넘는 일이며, 프레게의 설명을 단초 삼아 작동 가능한 과학적(=언어 사용자로서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과 능력들을 제대로 해명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영화 '바이센티니얼 맨'의 그 로봇에게 심어서 그를 언어 사용자로 만들어 주기에 충분한) 의미 이론을 세워 가는 일은 내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데 기대어서 이 말을 쓰고 있을 뿐, 이 말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프레게가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센스의 개념을 가지고 자연언어에 대한 의미론을 구축하는 일은 요원한 작업일 것 같다.

그렇더라도, 비트겐시타인의 가족유사성 개념도 동원하고, 퍼트남의 언어적 노동 분업의 개념도 끌어들이면서 '어떤 말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일 것'이라는 조건을 유연화하고 다듬어 간다면, 그리고 그런 노선의 취하는 것이 한국어를 자유롭게 말하는 '바이센티니얼 맨'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17] 의미 이론을 구축하는 유망한 길이라는 것 정도는 인정할 만하다.

그렇다면, '[…]'로 포괄된 내포 문맥 내부는, 프레게가 그렇게 취급했던 것처럼, 지시의 동일자 대입률이 아니라, "센스의 동일자 대입률"이 성립하는 영역이 된다. 센스가 무엇일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떤 말과 그 말의 정의(definition)는 동일한 센스를 가져야 할 것인데, 그러면 앞의

(1′) 경화는 [옆집 남자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한다.

와

(31) '외계인'=df.'지구 밖에서 온 지적인 생명체'

으로부터

(32) 경화는 [옆집 남자가 지구 밖에서 온 지적인 생명체]라고 생각한다

17) 앞의 주 참조.

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서로 다른 언어에서 번역적 등가 표현은 센스가 같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내포 문맥은 센스를 보존하는 번역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 자연스러운 그림이 데이빗슨에게는 마법사의 속임수 같은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도대체 '센스의 동일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보한단 말인가. 센스의 동일성이 확보되려면 화자의 발화의 의미가 이미 이해되어 있어야 하고, 일찍이 콰인이 처음으로 장치하였던 원초적 번역의 무대에서 발화의 의미란 화자의 믿음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비로소 결정될 수 있는 것인데, 화자의 믿음이란 그의 발화의 의미가 결정되지 않고서는 역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데이빗슨적인 의미론자가 처해 있는 원초적 해석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데이빗슨이 했던 것을 따라 화자의 대부분의 믿음이 진리라고 간주하고 콰인적 원초적 번역 작업을 시작하되 화자가 발화한 문장들에 대한 진리조건을 결정하는 일에서 시작하든 또는 다른 길을 찾든 (1)의 진술에서 내포절의 센스라는 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미론의 중심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데이빗슨에게 내포 문맥, 간접 인용 문맥이 센스의 동일자 대입률이 관철되는 영역이라는 프레게의 답변은 원초적 해석이 완료된 후에나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생각 끝에 데이빗슨의 간접 인용 구문 분석이 (그가 바라는 것처럼 믿음 구문 분석에 초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이론적인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것이 영어 화자에게 직관적으로 공감할만한 알맹이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인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한국어 화자는 이러한 분석을 공감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에 걸 수 있다. 인용된 명제의 내용에 따라서, 또 인용을 보고하는 동사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꽤 있기는 하지만 한국

어에서 간접 인용 문장은 화자의 공약을 전제(presuppose)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18)]

인용 내용에 대한 공약을 전제하기는커녕 인용 내용에 대한 부인을 전제로 보는 편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33) 경화는 화성에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다.

는 문장을 생각해보라. 이 문장은 '화성에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는 내용 문장에 대한 화자의 불신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내용 문장이 믿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한 사람들 각자의 판단에 대하여 여기서 따질 생각은 없다. 그러나 내용 문장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발화 맥락에 따라서 내용 문장에 대한 화자의 비동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장물취급 혐의를 부인하는 어떤 피의자를 옹호하면서 그의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을 생각해보라.

(34) 제 의뢰인은 아직도 그것이 깨끗한 물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간접 인용 문장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믿음 문장, 인식 문장을 올바로 분석하는 지침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 어미 '-라고'는 주동사에 따라서 주어의 발화를 나타낼 수도 있고, 주어의 심적 상태를

---

18) 나는 "K는 [P]라고 {믿는다/안다/생각한다/말한다}." 형태의 문장이 발화되는 경우, [P]에 대한 화자의 공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취소가능한(cancellable) 것이고, 따라서 문장 의미(sentence meaning)가 아니라 발화 의미(utter's meaning)에 속한다고 믿는다. 이것을 보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민찬홍, "'라고'의 형식의미론" 참고.

보고할 수도 있고, 주어의 인식적 태도를 표시할 수도 있되, 언제나 '-라고'로 연결된 내포절의 내용(content)을 문장의 주어에게 부여하는 데에 충실할 뿐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지적 태도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보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 '-라고' 내포절을 가진 문장에 대해 화자의 공약을 요구하는 의미론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 7. 앎은 진리를 전제하는가?

마지막으로, 처음 철학을 배울 때 우리를 당혹케 했던 서구 인식론의 한 가지 명제를 생각해보자. 플라톤 이래 서양 철학의 인식론은 '안다'는 동사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한다.

(35) S는 p를 안다 (S knows that p)

가

(36) p는 진리이고; S는 p를 믿으며; S는 p를 믿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라는 삼중의 조건으로 제대로 분석되는가 하는 것이 인식론 교과서의 첫 장을 채우는 토픽이다.

내가 처음 이것을 보았을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나는 '안다'에 대한 이런 분석을 소개할 때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언어적 사실을 납득시키는 데 힘을 들인다. (35)가 왜 p가

진리일 것을 요구하는가? "경화는 3+5=9라고 안다."라는 문장은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경화에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안다고 말해지는 것이 반드시 진리여야 할 것 같지는 않으며, (36)의 첫번째 조건은 이상하다는 것이 저 분석을 처음 듣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의심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학생에 대한 나의 답변: "'경화는 3+5=9**임을** 안다'거나 '경화는 3+5=9**라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 (35)에서 'knows that'은 이렇게 읽어야 돼." '…음/임을' 또는 '…라는 것을'은 동사 '안다'와 결합할 경우 내용 문장의 진리에 대한 공약을 잘 반영한다. 한국어에서 내용문에 대한 화자의 공약은 '안다'/'믿는다'는 동사의 차이보다 '라는'/'임을'이라는 내포 어미의 차이에 의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37) 경화는 P라고 {믿는다/안다}.
(38) 경화는 P{임을/라는 것을} {믿는다/안다}.

(37)의 경우 '믿는다'/'안다'는 동사와 관계 없이 P에 대한 화자의 공약은 중립적이나, (38)의 경우 동사와 관계없이 P에 대한 화자의 공약은 긍정적이다. 내포절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공약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안다'/'믿는다'와 같은 동사가 아니라 '라고'/'임을'/'라는 것을'와 같은 내포 어미인 것이다.

(39) K knows that 3+5=9
(40) K believes that 3+5=9

영어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식을 부여하는 (39)와 같은 문장은 그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가 내용 문장의 진리성을 믿을 것을

요구한다. (40)은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로 사고한다면 '안다'는 내용문의 진리성을 요구하는 동사라고 결론지을 수 있고, 이것이 영어 인식론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40)과 같은 믿음 문장을 다룰 때, 그들은 다시 흔들린다. 저 문장이 내포 문장이 기술하는 내용을 화자의 인지적 태도를 개입시키지 않고 오롯이 주어의 인지적 세계[19]에만 부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믿음 문장에 내포된 내용들이 화자도 역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화자는 문장의 주어에게 무엇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 콰인과 데이빗슨의 해석론적 전통에 따르면 믿음 문장은 본질적으로 주어의 인지적 세계를 화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비교 행위이다. 이런 관점에서 내용 문장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믿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한국어의 '-라고'가 갖는 비공약적 특성이 앎 개념에 대한 서구 인식론의 개념에 어느 정도나 의미 있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지금 나는 별로 말할 것이 없다. 또, 믿음 문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내용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은 어떤 진리 조건을 가져야 하고, 그것에 진리 조건을 정하는 데에서 그 문장이 나의 인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전체론적 순환이 '-라고'의 비공약적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활로를 만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전망도 예감도 없다. 그러나, '-라고'라는 어미가 믿음 문장, 인식 문장에 대한 서구의 분석을 다른 각도에서 재고할 만한 단서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가?

---

19) Dennett의 'notional world'를 염두에 둔 것. Dennett, D. (1989), "Beyond Belief", in his *The Intentional Stance*, MIT Press, pp.117-202.

# 참고문헌

민찬홍 (2013), "'라고'의 형식의미론", 미출간 원고.

이필영 (2005), "인용구문의 의미 특성 연구", 『언어』, 30-3, pp. 471-486.

Davidson, D. (1968), "On Saying That", in his *Inquiries into Truth &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93-108.

Dennett, D. (1989), "Beyond Belief", in his *The Intentional Stance*, MIT Press, pp. 117-202.

Dever, Josh (2006) "Compositionality" in Lepore, E. and Smith, B. C.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pp. 633-666.

Dummett, M. (1981),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Harvard University Press.

Frege, G. (1892), "On *Sinn* and *Bedeutung*", in Beaney, M. (ed.), *The Frege Reader*, 1997, pp. 151-171.

Lepore, E., and Smith, B.C. (2006),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Martinich, A.P. (ed.) (1990), *The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Quine, W.V.O. (1953), "Reference and Modality" in his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per Torchbooks, pp. 139-159.

Quine, W.V.O. (1956), "Quantifiers and Propositional Attitudes",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53, pp. 353-355.

Russell, Bertrand (1905) "On Denoting" in Martinich (1990), Oxford University Press, pp. 212-220.

한양대 정책학과
Hanyang University
ambiguus@hanyang.ac.kr

# *De re* context and some semantic traits of '*rago*'

Chanhong Min

The author, after introducing the concept of *de re* belief and discussing *de re/de dicto* ambiguity in belief context and modal context, concludes that modal sentences of Korean language does not show any distinctive traits against English. He, after discussing this ambiguity in negative sentence *a la* Russell, tries to show that Korean provides two way of negation construction, one of which corresponds to *de re* negation (primary occurrence in Russell's terms). *De re* reading makes referentially transparent context, thus permits substitutions of identicals *salva veritate*; *De dicto* reading does not. Korean ending '*rago*', used with quotation verbs, speech act verbs and cognitive attitude verbs, deserves some attention in that it permits *de re* sentences in addition to *de re/de dicto* ambiguous sentences. '*Rago*' also makes speaker's commitment to the content of the intensionally contained clause 'neutral', in contrast with other Korean endings such as '*um/im*' and '*raneun gut*' which make speaker's positive commitment. This explains why the maxim of western epistemology that knowledge presupposes truth does not hold in Korean '*rago*' sentences.

Key Word: *De re*, *De dicto*, Belief sentence, Quotation ending, '*rago*'